

변화의 시대를 사는 중국인들의 투쟁과 희망 《챌린징 차이나》

글_이경아(번역가)

중국에 관한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전에 나는 잠시 인터넷 서점을 둘러보았다. 검색어 창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치고 엔터키를 누르니 엄청나게 많은 책이 줄줄이 화면에 나타났다. 중국어 회화 교재, 중국 소설과 역사책, 중국 주식 투자법과 부동산 공략 방법에 달하기까지 참 많고도 많았다. 그 많은 중국 관련 서적의 바다에 《챌린징 차이나》(Challenging China)이 한 권 더 보태진들 표도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책은 눈여겨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인차이나' (Human Rights in China)가 엮은 이 책은 인권분야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중국인들과 그들을 위해 투쟁하는 인권운동가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글을 모은 책이다. 집필진들이 기자, 지식인, 법조인, 인권운동가, 시인 등으로 다양한 만큼 글의 형식도 인터뷰, 기사, 개인적인 이야기, 회고록, 분석들과 보도글 등 다양하다. 이들이 중국의 현재를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중국의 참모습을 고스란히 이 한 권의 책에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보면 중국내 사회적 약자들의 현주소를 다루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온갖 사회 문제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를 아우르고 있다. 가령, 사스(SARS)와 에이즈(AIDS) 문제, 이주 노동자 가정의 한 달 생계비, 미성년 매춘부들의 사연, 파룬공 현상, 중국의 기독교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등 중국의 치부라고까지 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주제들이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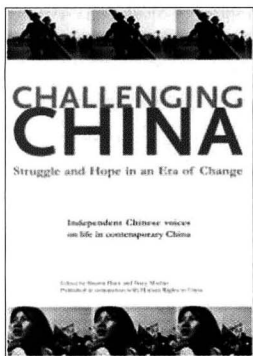
분이다.

몇 년 전 사스라는 괴이한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적이 있었다. 당시 사스라는 병 자체도 무서웠지만 정확한 보도를 금지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심지어 백신 개발 차질이라는 상황을 유발하는 중국 당국을 보면서 더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난다. 급속한 개방과 가속이 붙어 무한대로 질주하는 중국 경제의 화려한 얼굴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커커이 쌓여 있을 것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현실만 조금만 되돌아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부조리한 현실과 권력에 맞서 내일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위해 투쟁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중국 정부와 언론에 의해 조작되거나 은폐된 진실이 아닌 문자 그대로의 진실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

300여 쪽에 깨알 같은 글이 잔뜩 들어 있는 《챌린징 차이나》는 상당히 두툽한 책이다. 하지만 글쓴이와 등장인물들의 절절한 사연과 비판적이면서도 차분한 어조가 어우러진 글들이 참 재미있고 감동적이다. 주제는 무겁고 묵직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정치 관련 논문이나 통계자료처럼 딱딱한 글이 아니어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면) 한달음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지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 한없이 가까워진 중국. 언젠가 통일이 되면 국경을 접해 더욱 더 가까워질 중국. 그곳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중국인들의 사람 냄새 진하게 배어 있는 절절한 사연 한 번 읽어 보시지 않겠는가. *******

원 제 《챌린징 차이나》(Challenging China)
출판사_The New Press



English

풍자와 해학 속에 깃든 철학자의 고행 《볼테르의 웃음》

글_성귀수 (번역가, 시인)

이런 책이 가능한 이유는 볼테르가 무엇보다도 웃음의 대가라는 사실에 있다. 당대의 독선과 경직된 체제, 인간의 비굴함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던 '투사' 볼테르의 최강 무기는 다름 아닌 빈정거림과 조소, 날카로운 풍자, 해학 등 바로 '웃음의 힘'이었다.

이 책은 볼테르 탄생 300주년이었던 1994년에 볼테르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한 서신과 논쟁적 글들 속에서 가장 신랄하고 참신한 웃음의 위력이 담긴 대목들만을 추려낸 것이다. 볼테르 철학의 진수를 독특한 방식으로 터득하는 가운데, 딱딱하고 거친 성도보다 풍자와 해학, 경쾌한 조롱이 때론 훨씬 강력하고 예리한 비판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해주는 책이다.

글 중 상당 분량이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만, 결코 신학적인 논쟁이 주가 되는 법은 없다. 알다시피 볼테르는 신이 있고 없고 자체에 크게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며, '만약 신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만큼 이미 확 트인(!) 지성인이다. 그가 좌충우돌 펜대를 휘두르던 시대의 종교가 세속적 권력까지 포괄하고, 지식과 사상의 헤게모니마저 철학자들보다는 성직자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에 대한 그의 모든 비판이 어떻게 신학 혹은 철학의 테두리를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주장으로까지 해석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개 순진하고 어설픈 도사로, 구약의 예언자들을 괴짜 몽상가들로, 마호메트를 장난기 넘치는 사기꾼으로, 칼뱅을 화형대에 불을 붙인 장본인으로 파죽지세 몰아붙이는 가운데 우리가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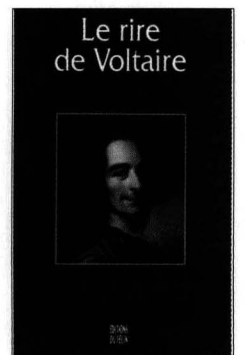
격하는 것은 모든 권위의 억압을 벗어 던지고 사상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볼테르 특유의 재기 발랄한 투쟁이다.

그 재기 발랄함 속에 일종의 실존적 비애가 섞여 있다는 사실은 '볼테르의 웃음'을 대하는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점이다. 예컨대, 신 또는 종교적 권위에 과감히 도전하는 태도를 끝까지 지탱하는 것은 오만한 신념이기보다는, 오히려 신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쓰라린 자각, 신의 부재를 확인했을 때의 고독감에 가깝다는 얘기가.

이러한 역설은 볼테르의 어느 유쾌한 풍자와 해학 속에서도 결국 철학자의 진지한 고행을 읽어내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고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라면, 그 탐구가 매순간 암시하는 제아무리 암울하고 처절한 결과물 앞에서도 명료한 의식과 의연한 자세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말로 볼테르 철학의 첫째가는 교훈인 것이다.

평소 볼테르는 철학적 동지인 달랑베르에게 '항상 냉소를 머금은 채 진리의 길을 걸을 것'을 권했다고 한다. 나는 그 '냉소'가 세상의 허황한 권위와 거짓, 위선뿐만 아니라, 어쩔 진리의 길을 절뚝이며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행에 대한 냉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

원 제_《Le rire de Voltaire》
저 자_Voltaire(Francois-Marie Arouet)
출판사_Editions du Fein



french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두 개의 인생》

글_홍순철(북코스모스 에이전시 대표)

‘극적인 삶!’ ‘드라마와 같은 인생!’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두 개의 인생을 경험한 주인공에게 인사치레처럼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단순히 이렇게 낭만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는 절망의 끝이 무엇인지 경험했고, 용기를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한때 그에게 있어 자신의 인생은 지독한 육지거리의 대상이었으며,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최악의 상황이었으며, 스스로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만이 최선인 것처럼 여겨졌다.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어 보이는 저 밑바닥에 도달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아주 조그만 애정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연민과도 비슷한 그 작은 애정에서 시작된 희망이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사한다.

이 책은 2007년 7월 독일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으며, 절망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 영화로 상영될 것이 결정되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2살에 시작한 마약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히로뽕으로 시작된 마약이 코카인을 거쳐 헤로인으로 그는 완전한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고, 길거리를 떠돌며 사기, 강간 등 각종 저저분한 범죄를 저질러서 겨우 얻어낸 얼마의 돈은 다시 마약을 사는 데 소비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두 딸도 한 인간의 마약 중독을 막을 수 없었고, 마침내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이미 심각한 마약중독자가 되어버린 남편의 곁을 떠나갔다. 엉망으로 망가진 자신의 삶에 대해 뒤늦은 후회도 해보고, 몇 번의 죽음의 고비, 자살 시도, 마약 마피아들에게 납치... 사건은 계속 이어졌고 그럴수록 그의 삶은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삶에 대한 의욕,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정으로 내린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도구는 운동이었다. 운동을 통해 도전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극복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철인3종 경기 선수가 되었다. 2004년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도 삶을 향한 그의 애착은 식을 줄 몰랐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와 두 딸은 돌아왔고, 그는 지금 또 다른 세 번째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 이 책은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인생을 살아온 자신을 향한 내면적 고백이며 성찰이며, 동시에 스스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희망과 도전의 보고서이기도 하다. **북코스모스**

원 제_《Vom Junkie zum Ironman》
 저 자_Andreas Niedrig
 출판사_Heyne(하이네)
 쪽 수_240쪽
 출간연도_2007년 6월



Germany

2008년 3월 개봉 예정인 영화 원작
《개와 나의 10가지 약속》

글_윤덕주 (엔북 대표 · 번역가)

사랑하는 주인님,
하느님이 제게서 건강과 시력을 거둬가시더라도
절 멀리 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며
영원한 휴식을 위한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제 마지막 호흡까지도 느끼면서
당신 곁을 떠날 겁니다.
제 운명은 당신의 두 팔 속에서 가장 안전했었다는
기억과 함께...

애완동물, 특히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이
나 동물병원 등에서 이 글을 읽고 가슴 뭉클했던 적이
있으리라. 이 글은 '베스 N. 해리스'라는 사람이 썼다
는 <개의 기도>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런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개와의 10가지 약속
>(The Dog Ten Commandments)이라는 것도 있다. 작
자 미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
만 <개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 <개와 나의 10가지 약속>이다.

강아지와 소녀의 첫 만남은 집 앞마당에서 이루어
진다. 엄마가 입원하고 종합병원 의사인 아버지는 일
요일에도 출근해야 할 정도로 바빠기에 소녀는 늘 집
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그런 와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다시 나타난 강아지. 오른
쪽 앞발만 흰 양말을 신은 듯 해 '삭스' (양말)라고 이
름붙인 소녀는 기쁘게 엄마에게 강아지를 데려간다.
병상의 엄마는 딸의 새 친구에 기뻐하면서도 드물게
도 진지한 얼굴로, 개를 기르려면 개와 10가지 약속
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어린 딸에게 '엄마를 삭
스라 생각하고 들어라'며 약속 하나하나를 들려주고

그 대답을 들은 엄마.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약속을
말한다.

"10번째, 당신과 지낸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탁이에요." 어머니는 무슨 말을 골라야 할지 망설
이는 양 잠시 멈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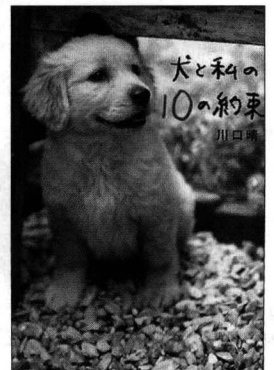
"내가 죽을 때 곁에 있어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본문 중)

마치 자신에 대한 말이었던 듯, 그 후 소녀의 어머
니는 숨을 거둔다. 얼마 후 아버지까지 병원을 그만
둔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소녀는 자라서 첫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직장도 얻는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
상 삭스가 있었다. 이제는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
는 소중한 존재가 된 삭스. 그렇지만 사랑과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하는 여자로 성장한 소녀에게 늘
은 개의 존재가 가끔 거추장스럽고 짜증나기도 한다.
개와의 약속 따위는 이제 그만 잊어도 되지 않을까?

개의 삶이 그렇듯이 또 그들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대단한 복선을 깔고 흥미진진
하게 진행되는 소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
를 기르고 있거나 기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물
을 피하기 어려운 감동이 있다. 책에는 보기만 해도
마음 포근해지는 강아지 사진이 실려 있는데, 현재
2008년 3월 개봉 예정인 동명의 영화 주인공이기도
하다. 작가는 역시 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쿠이루
>를 제작한 프로듀서이자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쓰
기도 한 극작가로, 영화를 염두에 두고 어렸을 때의
추억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한글**

원 제 (犬と私の10の約束)
저 자 가와구치 하레(川口晴)
출 판 사 분게이슌슈(文藝春秋)



Japanese